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오늘은 주일이면서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는 건강 주시기를 빕니다. 추운 날씨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6학년과 선생님들이 28일(토)부터 2월 9일(목)까지 졸업여행(싱가폴)을 다녀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 감사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 호

2023년 1월 22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새해의 다짐

2023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1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새해가 그리고 설 명절, 또 겨울이 금방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 겨울 무림리는 정말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져서, 정말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나뭇가지 하나하나마다 소복이 쌓인 눈들이 해가 들어도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서 정말 절경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년 무림리 생활하는 동안에도 매우 드물게 본 광경이어서, 무척 아름답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광경은 그 놀라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면이 꼭 있습니다.

겨울에 만날 수 있는 장관은 뭐니뭐니해도 설경이기에 겨울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림리 특히 사랑방이 자리 잡은 터는 유난히 눈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나, 차량이 마당까지는 들어오지 않기에, 눈 덮인 아름다운 모습은 꽤나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설경은 마치 겨울왕국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기 때문에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멋진 풍경도 사나흘 정도 지나면 아스라이 녹아서 사라집니다. 비록 나뭇가지의 눈은 다 녹아 없어졌지만, 연령별 사랑방 아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둔 눈사람은 그날의 풍경을 잊지 말라는

듯 마당 한가운데에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은 대체로 마음의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새해가 되면 으레 새로운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적응과 학업에 대한 다짐, 청년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미 연륜이 있고 살아 온 날들이 적지 않은 어른들은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다짐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든 재산이 되든 자기 발전이 되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성장을 계속해서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딘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의 성취를 이루어간다면,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새해의 다짐은 눈 덮인 아름다운 설경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눈부신 장면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처럼, 다짐했던 일들은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이끌어가는데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운이 옅어진다고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만들어 세운 눈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다짐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욱 나아가 이 다짐들을 잘 실천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다짐하고 결심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한주간 말씀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

< 시편 1편 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93, 397, 407, 405 / 370

기도 :

성경 : 요한복음 2장 13-25절

제목 :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다

1. 내용 :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역하시다. ( What )

- 1)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히 하셨다. <13~17>
- 2)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과 대화하셨다. <18~22>
- 3)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아신다.<23~25>

2. 의미 : 예수께서는 성전의 역할을 회복시키셨다. ( Why )

- 1) 성전은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v.16>
- 2)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v.21>
- 3)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 <v.24>

3. 적용 :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자. ( How )

- 1.우리는 교회로서 기도하자.
- 2.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자.
- 3.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자.

##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아이들과 함께 방학을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월 끝자락에 눈  
호강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최근 학부모님께서 양주에 '루아흐' 라는 요가&필라테스 운동센터를  
오픈하셔서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친절하고 예쁜 원장님의 지시를 따라하  
는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이 긴긴 방학기간에 쿨바람 쐬러 가는 즐거운  
날입니다.^^ 운동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갈비뼈와 고관절을  
사용하며 호흡하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요. 출산과 동시에 운동을 멈춰버  
린 몸과, 아이위주로 살아왔던 몸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안 쓰던 근육들을  
깨웁니다. 하고나면 녹초가 되지만 땀방울이 맺히는 기분 좋은 근육통이 지  
금은 익숙하고 반갑습니다. 웬지 예전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서인지.. 혼자 와서 그런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넓은 운동  
장에서 힘 없이 뛰고 산을 오르고 먼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고 했던 일상  
이 운동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장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선택하지 않으  
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속에서 내 육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건강  
했었던 옛날의 나로 착각하며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반성과 건  
강한 몸으로 주신 일을 잘 감당하리라 결단해 보았습니다. 건강은 운동과  
맞물려 무엇을 먹느냐 또한 중요하단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  
우는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 선별하며 몸의 영양을 채우는 것이 건강한 삶  
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문득.. 끼니를 채울 수조차  
없는 곳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올 때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삶들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한 것이기에 최고의 작품인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또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성전 뜰 상인들에게 격노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성전은  
주님을 위한 곳이므로 성전으로써의 내 몸 또한 그 역할로 빛이 날수  
있도록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다시 찾아올 봄을 위해서, 앞으로 시작될 섬김의 시간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한 영혼육을 만들어가길 기도해봅니다. 이미 건강하  
게 채워가시는 우리 사랑방식구들이 존경스럽습니다. ^^

선교공동체 차태옥 사모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출애굽기 15 : 11, 13 인도자  
21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에베소서 1 : 7 인도자  
251, 44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시편 1 : 1-6 설교자  
486, 487 사랑방  
“ 복 있는 사람 ”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88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정혜라 한미선/ 봉헌위원 : 이윤순/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 공동기도문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하는 것** 시편 1편에서 첫 절은 세 번 반복되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시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수시로 떠올리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을 가득 채우고, 그런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좇아서,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좇아서, 지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위를 좇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멧쟁이학교 >

### 조 율

유난히 추운, 멧쟁이 마지막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늦은 밤 주보 글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오늘 내내 설 준비를 하며 희정이의 파란만장한 멧쟁이 6년을 생각해보니 떠오르는 단어~ 아~~"파란만장" 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친구들처럼 공교육 받고 싶다는 아이를 반 강제로, 협박하듯 멧쟁이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그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도 이해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가 이 부분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1학년, 2학년 내내 주말마다 집에 오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멧쟁이에는 친구도 없고, 마음을 나눌 선생님도 없다고 투덜대고, 중국도 가기 싫다던 희정이... 그 정도로 그녀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신호였다.

학교에서 잠도 두어 시간 밖에 못 자던... 결국 중세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 중 아토피 피부염이 심각해져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공학에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 몸이 진물 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희정이가 말했다.

"엄마, 나 선생님과 친구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선생님과 친구들이 정말 가족 같아~"라고. "아~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해주셔서"라고 난 속으로 울고 있었다. 한 달 만에 회복되어 돌아갔지만, 코로나로 다시 한 달 만에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의 자존감은 회복되어 학교생활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6학년 마지막 학부모 면담에서 그녀가 6년의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체와 학교, 자신의 모습을 정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이제 엄마는 또 소망한다. 그녀가 현실이라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서도 영혼의 중심을 찾아가길...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중심에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조율하기를~!!

멧쟁이학교 6학년 유희정 엄마 김혜경

배움과 가르침

땅에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꾸러기, 어린이, 멧쟁이)학교를 졸업하는 지수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 평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로 14:17)

6살 때 지수가 아빠와 함께 하는 캠프를 다녀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요 다시 다섯 살이 되고 싶어요." 저는 궁금해서 "왜?" 라고 물었더니, "다섯 살이 되면 아빠 캠프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라고 지수는 대답했습니다. 그토록 꾸러기학교를 좋아하고, 재밌게 생활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린이학교 6학년 마지막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월영 교장선생님께서 지수는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교육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방 교회다운 공동체적 학생이라고 칭찬해주시면서 교육 목회에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멧쟁이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수가 종강여행을 다녀와서는 "엄마, 후배들에게 받은 편지예요. 한 번 읽어보세요."라며 건네준 편지의 내용입니다.

언니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보고 언니의 신앙심을 본받고 싶다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지만, 결코 자신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의 언니를 존경한다고. 언니와 함께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적 도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지수언니는 멧쟁이다운 진정한 멧쟁이라는 편지를 보면서 지수의 14년의 학교생활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사랑방공동체학교에서 삼남매를 키우면서 6년 공동체학교 주방 선생님이요, 3년 재롱이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름다운 시간들과 함께 저희 가정을 성장시킨 공동체 학교는 저희 가정의 기쁨이 되어 주셨고, 아이들에게는 삶에서 하나님나라라는 가치를 지니고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수를 포함한 저희 가정 5명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서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방공동체 선생님들과 공동체 식구들.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멧쟁이학교 6학년 최지수 엄마 백성복

## 주님의 사랑이

나는 노래를 좋아한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한다. 아마도 생각이 단순해서 그런가 보다.

요즈음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가, 우리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주님의 사랑이'로 시작되는 찬양이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다 보면 자면서도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본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하다가 가사가 틀린 것을 깨닫는다. '우리의 만남 속에'인데- 그러면서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속에'와 '우리의 만남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마음속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내 자신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의 근간이고, '만남 속에'는 특정한, 다시 말하면 정확한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예전에 교직에 있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고민했다. 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교사들의 편애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왔기에 난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난 아무도 미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을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역설적이게도 '편애라도 하자'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해마다 3월이 되면 내가 편애할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3월이 다 가도록 못 찾기도 하고, 4월 5월 6월 한 학기가 다 지나서야 찾아내 기도 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아니 구체적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표현이 더 맞으리라. 항상 어리석고 실수 투성이었던 하지만 말이다. '편애'는 내 능력에 맞는 사랑법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직을 떠난 지금도, 난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게다가 요새는 사랑하기를 잊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찬양 속에서 '만남'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내게 알려주시나 보다.

오늘 눈이 마주친,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전경희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397장 427장

성경 : 고린도후서 9:6-7

말씀 :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해 교회를 박해하는 '디지털박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 약 3억 6천만 명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

- 1) 각 공동체에 주신 꿈과 뜻을 잘 품어낼 수 있기를 위해
- 2) 건강과 지혜를 더 하여 주시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설 명절을 앞두고 오고가는 길의 안전을 위해
- 2) 명절이면 더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를 더 살필 수 있기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눈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공동체 마당에는 흰 눈이 쌓여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눈이 얼어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처럼 겨울의 삭막함을 덮어주는 눈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설 명절을 맞으면서 먼 고향을 다녀와야 하는 식구들이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후에 한파가 온다고 하니 걱정이 많습니다. 공동체에 각 시설이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식구들 모두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